

사업회 소식

“선생님에게 행복한 가르침을,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학습을!”

무더웠던 여름 방학 동안 사업회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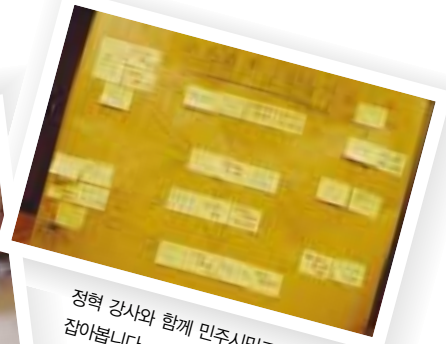
7월 27일 ~ 28일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 기초과정



임상한 강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열고 소망 나무에 어떤 열매를 달지 더듬어 봅니다.



매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새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깡니다. 7. 29. 다음 날 한쪽에선 박준형 강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한 해 살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눕니다. 다른 곳에선 조영선 강사와 함께 고등학교 국어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혁 강사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를 잡아봅니다.

◆◆ 연수를 듣고나서~ ◆◆

- 교실 적용 가능한 방법을 배워가요.
- 현재 내 삶에 변화를 주었어요.
- 멋진 선생님! 본 받고 싶어요.
-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 1박 2일이라 아쉬워요. 3박4일로 늘여주세요.
- 현실수업에 활용 가능해요.
- 다양한 사교를 유도해요.
- 재미와 감동 그리고 본질에 대한 탐구까지 최고였어요.
- 내가 잊고 있었던 비전에 대해 다시 일깨워졌어요.
- 현장에 정말 많이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동 또 감동 했어요.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뼈대를 잡을 수 있었어요.
- 재미있는 놀이와 실천의지까지 확실해요.
- 뒷풀이 최고최고!!
- 무척 재미있었고 뜻깊었어요.
- 철학 + 기법이 조화로웠고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약간 감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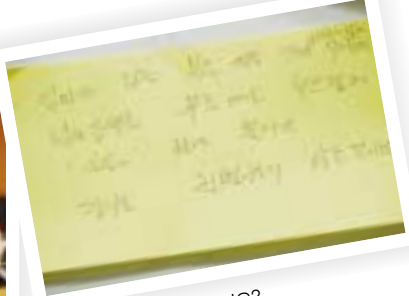
8월 3일 ~ 4일 중등 정의 - 책임 연수

올해 진행한 정의, 책임 교사연수는 미국시민교육센터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정의, 책임, 권위, 프라이버시] 의 프로그램 공유 도서를 한국형으로 개발, 발간 후 수업 적용을 위해 마련한 연수입니다. 미국시민교육센터의 수장인 찰스퀴글리가 화면으로 보이네요.



7월 29일 ~ 30일 초등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 - 정의 연수

강사들과 함께 웅기중기 모여 앉아 연수를 진행하니 감히 줄 수는 없죠^^ 실은 너무 재미있어서 줄 틈이 없었다죠.



도대체 정의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입장으로 상상을 해 보았어요

◆◆ 연수를 듣고나서~ ◆◆

- 수업을 직접 보여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 선생님의 진솔한 고민과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 책 한권을 훑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 잘 준비된 강의를 통해 현장에 응용하여 실제 교육에 도움이 될 거예요.

- 어서 적용해 보고 싶어요.
- 생활 주변의 상황과 교과서를 정의의 교재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어 좋아요.
- 2학기 수업할 생각에 벌써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정의의 교재' 활용에 설레입니다.
- 예시 자료를 들어서 정의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 실제 수업 할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어요.

8월 19일 ~ 20일 민주시민교육 - 관계의 기술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인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임을 확인해 봅니다.



신문지 민주탑 멋져요!! 만드는 과정도 멋지셨죠?



자신을 녹여 누군가를 밝히는 촛불에 기대어 자신의 성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려는 선생님들은 깊은 밤을 뜨겁게 달구셨지요.



타인 되어보기와 평화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감수성도 만져봅니다.

◆◆ 연수를 듣고나서~ ◆◆

-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
- 깨어서 행동할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인식
-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
- 내 생각과 반대입장이 되어 보는 경험
- 발 딛고 현실에 대한 살핌
- 민주시민교육은 소통의 교육

- 좋은 선생님들과의 의견교류를 통한 기반기
- 힘찬 개혁 맞이
- 타자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유로운 시선
- 나의 변화와 더 큰 고민거리
- 훌륭한 선생님들과의 만남
- 분명해진 '민주적'의 의미

2010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참가



이정옥 기념사업회 국제사업 자문위원장과 박문진 국제사업 담당자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US Hastings법대에서 개최된 2010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에 참가했다. 2008년 스위스 아라우에서 열린 1회 포럼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던 기념사업회는, 2009년 서울에서 2회 포럼을 주관하였으며 이번 3회 포럼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3회 포럼은 1회부터 본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주민발안과국민투표연구소(Initiative and Referendum Institute Europe)와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단체인 책임있는시민재단(Citizens in Charge Foundation)이 공동주최 했으며, 새로운미국재단(New America Foundation), US Hastings 법대 등이 주요 후원기관으로 함께했다. 본 포럼 기간에 앞서 7월 28~30일 까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직접민주주의 현장 탐방이 진행되었으며, 본 포럼의 처음 2일은 미국의 직접민주주의를 다뤘고 이후 3일 동안 글로벌 차원의 직접민주

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참가등록자 기준으로 총 350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기념사업회와 대만, 인도, 필리핀 등에서 참가했다.

이들간 진행된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포럼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현재 미국의 주민발안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자본의 개입 또는 역할, 직접민주주의와 미디어의 관계,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 되었다.

이후 진행된 글로벌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포럼에서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사례가 비교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을 비롯하여 동유럽과 남미 등의 사례들이 함께 소개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 차원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행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온라인화 하여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포럼과 같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 워크숍도 진행되었는데, 활동가 워크숍 및 초국가적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워크숍에서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수립과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시민발안제(European Citizen's Initiative)를 사례로 글로벌 차원의 직접민주주의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포럼의 개막식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가?(Can We Govern Ourselves?)”에 대해 참가자들 스스로 “Yes!”란 답을 내렸을 것이라 기대하며, 4회 포럼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본 포럼은 성공리에 끝났다.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



지난달 26일(목) 오전 9시부터 사업회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가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된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의 원고접수가 7월 28일 마감되었고, 총 77개 참여 모둠 중 예비심사를 거쳐 16개의 모둠이 이번 대회에서 자신들의 사회참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직접 학교와 거리에 나서서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 탐방 등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공공정책들을 조사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다룬 문제는 지역 도로 개선 문제부터 세계 아동들의 노동착취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청소년들은 그동안의 공공정책들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살피는 작업과 함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효과가 높은 공공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책 당국에 제안을 하고 직접 책임자를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리로 나가 자신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짝 짜인 학교 정규 교과 수업과정을 함께 하면서 틈틈이 학교 지도교사 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기본적 교육권 강화'를 발표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소설백신 모둠이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은 '아동들에게 희망주기 프로젝트: 공정 무역에 참여해요'를 발표한 신사중학교 희망이야기 모둠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발표한 거창고등학교 농촌 살리기 모둠이 차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상에는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제한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한 용남고등학교 IPOD모둠이, 경기도 교육감 상에는 '방문형 통합교류활동을 실시합시다'를 발표한 인천국제고등학교 ICON 모둠이, 고대한국사회연구소 소장 상에는 '빨간 유혹, 하얀 죽음'을 발표한 거제중앙고등학교 안단테 모둠이,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소장 상에는 '아무지게 일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자'를 발표한 영동일고등학교 F.L.Y 모둠이 각각 수상했다.

사업회 소식

2010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참가자들 사업회 방문



2010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참가자들이 지난달 9일 사업회를 찾았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에게 인권학교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교육하고 상호 교류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5·18기념재단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네팔 인권감시위원회, 태국 공공정책연구소, 인도네시아 실종자가족협회, 대만 2·28기념재단 등 아시아 14개국 시민단체 활동가 20명이 참여했다.

9일 오후 2시 사업회에 도착한 이들은 사업회 소개 영상과 '한국 민주화운동 다큐멘터리' 영상을 함께 보고 사료관을 견학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사료 80만여 건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서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료가 생성된 당시의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질문, 사료의 수집과 보관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80만건 중 20만건은 DB로 구축되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사료를 볼 수 있다는 데에도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3시 30분부터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각국의 상황과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비교하는 질의가 계속됐다.

독일 EZE 회원 사업회 방문



지난달 20일 성남 주민교회와 독일 EZE 회원 30여 명이 사업회를 방문했다. 독일 EZE는 70~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에 도움을 준 인연으로

한국을 찾았다. 사업회에서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개와 사업회 활동에 대한 소개, 사료관 견학 등의 시간을 보냈다.

CCE 세계의회 참가



지난 7월 23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CCE(Center for Civic Education) 세계의회에 교육사업국 신형식 국장과 실무자가 참가했다. 전

세계 60여 국가에서 이뤄지는 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전세계 시민교육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CCE 세계 대회 참가를 통해 사업회는 CCE 핵심 관계자들과 시민교육 아태대회에 대한 실무차원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사업회와 교육사업국 업무를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시민교육 아태대회를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활동가들에게 홍보하고 협력을 구했다.

4월혁명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전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재조명'

-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10:30~18: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 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프로그램

개회식		등록, 개회
10:00	• 개회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제 I 세션		〈제3세계와 냉전의 유산〉
10:10 ~ 12:30	• 사 회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 발 표	국민당정권하의 대만민주주의의 한계 - 탈식민, 냉전과 관련하여 첸친싱, 대만 세신대학(世新大學) 1960년대를 즈음한 전후 필리핀 민주주의 네일 산틸란, 필리핀 딜만대 1950년대 제3세계이념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이 끄트 뿌뜨라 에라완, 유다야나대
	• 토 론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제 II 세션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민주주의〉
14:00 ~ 15:30	• 사 회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발 표	전후 일본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 나가노 토시오(中野敏男), 일본 동경외대 미군정하 오키나와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나미히라 츠네오(波平恒男), 일본 류큐대
	• 토 론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비교연구)
제 III 세션		〈민주주의 발전의 대내외적 조건〉
15:45 ~ 17:15	• 사 회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비교연구)
	• 발 표	4월혁명과 전후 아시아민주주의 찰스 김, 미국 위스콘신대 전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비교 - 인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부리지 탕가, 인도 델리대
	• 토 론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종합토론		전후 아시아민주주의의 재조명
17:30~18:30	• 사 회	정근식 연구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 토 론	발표자 전원